

“사팔라’ 돌풍? 젊은 팬들 기발함 덕분”

‘모욕감을 줬어’ ‘누가 기침소리를...’
수십년전 명대사들 SNS서 재생산
재미로 승화시킨 팬들에 한수 배웠죠

한쪽 눈을 가린 ‘태조왕건’의 공예는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라며 신하들을 다그친다. 그리고 ‘아인시대’의 김두한은 ‘무대뽕’ 정신으로 “오케이! 사 팔라(4달러)!”라고 외치며 임금 협상에 성공한다. 또 ‘달콤한 인생’ 강 사장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나지 막이 말한다. 길게는 19년, 짧으면 14년 전 각 작품 속 김영철(66)의 대사들이다.

이 명대사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유튜브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재생산’되며 온오프라인에서 ‘인싸템’으로 통한다. 배우 김영철은 몰라도 ‘사 팔라 아저씨’는 안다. 그 열풍의 주역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만났다. 그는 “시대의 흐름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허허 웃는다.

그도 그럴 것이 김영철의 가장 큰 매력은 상대를 움찔하게 만드는 강렬한 눈빛과 어조가 돋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다. 근엄하고 위압적인 모습이 최근 정반대로 뒤바뀌었다.

지난해 7월 파일럿으로 선보이고 11월 정규 편성된 KBS 1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 출연하면서 친근하고 푸근한 인상이 어느새 그를 대표하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렇게 회자될지 누가 알았겠나. 하하! 작가님들이 써준 대로 저 나름 연구해서 표현했는데 어린 친구들까지 좋아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재미로 승화시키는 젊은이들의 기발함에 놀랄 뿐이다. 좋은 의미로 활용해 웃음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사실 김영철은 처음부터 패러디 광고 등을 동의하지는 않았다. “회화화”되는 자신의 모습이 자칫 원작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망설였지만, 남녀노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마음이 놓인다. 또 ‘선배’로서 최근

후배들이 잇달아 사건사고를 일으켜 흥흥해진 분위기와 연예인을 향한 대중의 불신이 조금이나마 정화되고 희석 되길 바라고 있다.

김영철은 길에서 자신을 본 시민들의 외침은 “궁예다!”와 “사 팔라 아저씨!” 그리고 “동네 한 바퀴”로 나뉘고 했다. 여전히 드라마 속 모습을 기억해주는 팬들이 더 많지만,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감사하다고 거듭 표했다.

“화면 속에서는 연기자이지, 밖에서는 평범한 시민”이라는 그는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을 들여다보며 어루만지고 공감한다”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위로와 응원을 받는다”고 머쓱해 했다.

김영철은 매주 목요일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피어나는 “동네 기행”을 떠난다. 서울·경기·인천·포항·목포·군산 등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다. 화·수요일은 목요일 촬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력을 축적하는 데 집중하는 날이다. “좋아하던 술은 아주 적게” 마시고 “등산”으로 체력 관리에 힘을 쓰고 있다.

“은종일 걷는 건 힘들지 않다. 걷다가 힘들면 멈추면 되니깐. 하지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건 보통 에너지로는 부족하다.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항상 긴장해야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는 상대 기분 나쁘지 않게 정리해야하는 등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 같아도 뇌는 쉴 새 없이 돌고 있다. 하하! 말재주 없는 제가 짜여진 틀 안에서 하다 열린 공간으로 나오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영철은 “부족한 게 많은 ‘놈’인데 가는 곳마다 반갑게 맞아준다”며 “TV 속 이미지가 좋게 ‘포장’되어 예전처럼 편하게 걸어 다니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좋으면 좋은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솔직한 감정으로 방송에 임하고 싶다”고 했다.



“오케이! 사 팔라(4달러)!”
과거 명대사로 다시 화제를
모으는 김영철.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김영철 ▲1953년 2월25일생 ▲1973년 민예극단 입단 ▲1977년 동양방송(TBC) 공채 18기 탤런트 ▲1987년 KBS 1TV ‘토지’·연기대상 우수연기상 ▲1991년 KBS 1TV ‘왕도’·연기대상 최우수연기상 ▲2000년 KBS 1TV ‘태조왕건’·연기대상 대상·한국방송대상 탤런트상 ▲2003년 SBS ‘아인시대’·연기대상 연속극부문 우수연기상 ▲2008년 ‘마이 퍼터’·춘사영화제 남우조연상 ▲2012년 KBS 1TV ‘별도 달도 따줄게’·연기대상 일일극부문 우수연기상 ▲2017년 KBS 2TV ‘아버지가 이상해’·연기대상 대상

위태로운 연예계 잇단 3題 ▶▶▶

구하라 극단선택 시도

우울증 시달려...생명엔 지장 없어
전날 SNS엔 ‘안녕’ 글 올려 파장



구하라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26일 오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한 그가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리가 이날 오전 12시 40분경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하리와 연관이 닿지 않던 매니저 A씨가 집에서 쓰러져 있는 구하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발견 당시 집 안에는 연기를 피운 흔적이 남겨졌다. 이날 오후 1시까지 구하리의 의식은 없지만 호흡과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구하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안녕”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그렇게 계속 참고 살다 보니, 속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 ‘한 마디의 말로 사랑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글을 연이어 올렸다가 끝장 삭제했다.

구하리가 잘못된 선택을 시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 최중범 씨와 쌍방폭행 시비에 휘말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일로 구하리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고,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취미 생활에 시작하며 정신적인 치유에 집중해왔다. 또 최근 일본에서 팬미팅을 여는 등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구하리가 지난달 안검하수 수술을 한 것을 두고 악플을 달며 비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효린은 학폭 가해자”

“3년간 상습적 폭행” 온라인 폭로
효린 측 “일방적 주장” 대응 방침



효린

걸그룹 씨스타 출신 효린(김효정·29)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효린 측은 “일방적 주장이다”며 향후 이에 맞설 것임을 밝혔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학폭(학교폭력) 미투, 정말 치가 떨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효린이 중학교 시절 학력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26일 오후 해당 글은 삭제됐다. 그 사이 사실 여부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효린의 소속사 브리지는 26일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피해자를 만나 해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글이 삭제된 후 소속사 측은 다시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지난 1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명예가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연예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A씨는 “15년 전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효린에게 3년 동안 끊임없이 폭력을 당했다”며 “(효린)상습적으로 웃고 현금을 빼앗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가 멋있게 TV에 나와 이미지를 세팅하고 활동하는 꼴이 역겹다”면서 효린의 졸업사진 등을 공개했다.

2010년 씨스타로 데뷔한 효린은 2017년 6월 그룹이 해체되면서 1인 기획사 브리지를 설립하고 홀로서기에 나섰다. 최근 싱글 프로젝트 ‘#엑스효린엑스’의 첫 번째 곡 ‘니가 더 잘 알잖아’를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했지만 폭력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정연 기자

대세 ‘잔나비’ 곤두박질

멤버 유영현 “학폭 책임...자진 탈퇴”
최정훈 ‘김학의 연루’...섭외취소 러시



잔나비

‘대세’로 떠오른 그룹 잔나비가 한 순간에 몰락할 위기에 놓였다. 멤버 유영현(27)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리더 겸 보컬 최정훈(27)이 김학의의 전 법무부 차관에 혐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회사 경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영현은 23일 학교 폭력 피해자라 주장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온라인상에 오른 뒤 다음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며 팀에서 탈퇴했다. 그에게 과거 폭력을 당했다는 A씨는 “다른 친구들보다 말이 살짝 어눌했던 나는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며 “반응이 웃기다고, 재미있다고 라이터로 장난치고, 비발봉지를 얼굴에 씌우고 내 사물함에 장난쳐놓는 것은 기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최정훈은 24일 아버지가 3년 전 부동산 시행업체를 설립해 따른 경기 용인시 개발 사업권을 둘러싸고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와 구설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김학의의 전 차관에게 3000만 원이 넘는 향응과 접대를 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정훈과 그의 형이자 매니저는 부친 회사의 주주이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휩싸였다.

이에 최정훈은 25일 SNS를 통해 “아버지의 요청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드렸다. 제 명의 주식 투지금은 150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전 차관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아버지와)가까이 지내던 친구 사이”라면서도 “그로 인해 어떠한 혜택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영현의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13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4

방탄소년단 브라질 공연 5만명 열광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이 26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알리안스파르크 스타디움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들은 2시간 30분간 공연을 벌이며 20여곡을 선보였다. 약 5만 명의 팬들은 열광적으로 응원했다. 방탄소년단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오사카와 시즈오카로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간다.

‘개콘 1000회 축제’ 성황리 마쳐



개그콘서트

KBS 2TV ‘개그콘서트’가 ‘레전드’로 꼽히는 출연자들과 다양한 스타들의 축하 속에 1000회의 축제를 마무리했다. 19일 1000회를 맞은 ‘개그콘서트’는 26일까지 2회분으로 1000회 특집을 구성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김미화 박성호 김지혜 심현섭 강성범 윤형빈 등과 송은희, 연기자 조재윤, 그룹 DJ DOC 등이 출연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장동건·송중기 ‘아스달 연대기’ 소개



장동건 송중기

장동건 송중기 김지원이 주연작인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를 소개했다. 이들은 6월1일 드라마 첫 방송을 앞두고 ‘세상 모든 전설의 시작’이라는 부제로 자신들의 대본 연습 장면 등을 26일 공개했다. 이들은 인터뷰를 통해 드라마를 설명했고, 김영현·박상연 작가는 ‘아스달’의 제목에 대해 풀이하며 본 방송에 앞서 시청자 이해를 도왔다.

강기영, 3년 열애 연인과 비공개 결혼



강기영

연기자 강기영이 25일 3년 동안 교제해온 연인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예식을 올렸다. 강기영은 이날 SNS를 통해 “인생 2막의 막이 오른다”며 웨딩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MBC ‘내 뒤에 테리우스’로 연기대상 조연상을 수상한 강기영은 ‘오 나의 귀신님’ ‘역도요정 김복주’ 등 드라마에 출연해왔다.